

“의도적으로 고성수협 죽이기 시도”

고성군수협 임원 10여명 황군수 향의 방문 ... 황종국 군수 “듣기 거부하다·그런 적 없다”

고성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성태’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직거래 냉동명태 2차분을 수입했다가 수천만원의 손실을 본 고성군수협 임원들이 지난 12일 황종국 군수를 향의방문해 3가지 사안에 대한 군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군수 집무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고성군수협에서 최영희 조합장을 비롯해 전무이사, 비상임 이사, 사업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성군에서는 해양수산과장과 연안개발담당이 배석했다.

2차 수입 손실분 보전 문제는 이날 면담에서 고성군수협은 우선 2차 수입 손실분에 대한 보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조합장은 “고성태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을 살리자는 군수님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사업에 동참했다”며 “그러나 적자가 발생하면 실무자가 변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 이사들은 “만에 하나 사업 손실이 발생하면 조합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수차례 건의했으며, 그때마다 담당 계장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황종국 군수는 “명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조합장도 같이 러시아까지 가서 사업에 동

참하지 않았느냐”며 “군은 일차 리창출과 브랜드화가 중요하지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줄 수가 어렵다”고 했다.

황군수는 또 “아쉬운 것은 조합장이 이미 다 팔렸다고 했고, 보고받기도 오히려 모자란다고 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조합장은 곧바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3차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2차분도 다 안 팔렸는데 벌써 들어오면 어떡하느냐고 말씀드렸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황 군수는 “왜 원가보다 싸게 팔았느냐”고 했으며, 최 조합장은 “물건 자체가 안 좋아서 잘 안 팔리므로, 창고비라도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일부 언론 일방적 보도 문제는 고성군수협은 두 번째로 일부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거론했다. 최 조합장은 “여지껏 명태 관련 인터뷰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많은 주민들이 언론보도를 보고는 명태수입은 고성군에서 자금을 다 지원해주는데 무슨 적자가 생기느냐고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조합장은 또 “2차 수입의 경우 물건이 좋지 않아 잘 팔리지 않았는데도 각종 언론 보도에서는 곧바로 다 판매가 된 것으로 나갔는데, 누가 그런 정보를 줬

냐”며 “창고비를 아끼기 위해 텀핑으로 판매하는 등 손실을 본 내용 등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어떤 보도가 나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인성실업 물건 판매시점 문제 = 고성군수협은 세 번째로 지난 5일 고성군수협에서 먼저 인성실업으로부터 8통(38~40cm) 10.5kg 1차분 2,400편을 1편당 1만7천원에 도매로 사와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고성군이 이를 뒤인 7일 죽왕수협을 통해 똑같은 물건을 들여온 뒤 1만 8천원에 판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참석 이사들은 “2차분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충하려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물건을 2천원이나 싸게 판매하는 것은 고

성수협이 3차 수입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양갈음이 아니냐”며 “의도적으로 고성수협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최 조합장은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더 싸게 파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따졌다. 다른 이사들은 “죽왕수협이 지금 1만7천원에 들여와 1만8천원에 파는데 인건비 물류비 창고비 등을 제외하면 어떻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두 수협을 싸움 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황군수는 “죽왕수협에 물건이 들어온 다음날인 8일 과장에게 보고를 들었다”며 “보고를 받고 그저 그런가보다고만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자 최 조합장은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고성군수협에는 관심이 없고 죽왕수협만 관

심을 갖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다른 이사들도 잇달아 거들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과장과 연안개발담당이 끼어들려고 하자 이사들은 거의 욕설에 가까운 고성을 내질렀으며, 황 군수는 수차례 “듣기 거부하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황군수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마음 고생이 있었다면 이제 감정을 버려 달라”며 “실무자가 분석을 철저히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군수는 또 “제3의 시장 개척도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해 그동안 거래해온 PBTF사가 아닌 다른 루트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광호 기자

영농철 맞아 농촌일손 돕기 전개

고성군 이달 1일~6월30일까지...농촌일손돕기 창구 개설

고성군은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유휴 노동인력 감소로 인한 영농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나선다.

농촌일손돕기는 고성군청 산하 공무원과 군인, 기관단체 회원들의 참가신청을 받아 영농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육묘상자 나르기, 모내기, 밭작물 파종, 농로정비, 폐비닐수거 등의 작업을 펼치게 된다.

우선 지원 대상자는 인건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약자 및 부녀자 가구, 재해·재난

피해복구 농가, 휴경지 경작 농가 등이다.

한편 지난해 영농일손돕기는 공무원, 군인, 유관기관·단체 등 1,027명이 참여해 126농가의 116ha에 모내기, 농작물 파종, 수확 등을 지원해줬다. <문의 680-3401> 최광호 기자

고성신문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고성신문은 ‘행복한 고성 만들기·행정과 주민의 가교·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란 창간이념으로 새롭게 창간한 지역 주민들의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기구독이 고성신문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납부 방법

- ① 통장 자동이체
- ② 지로 납부
- ③ 직접 납부(통장, 사무실)

◇구 독 료 : 월 4,000원(1년 선금 4만원)

◇입금계좌 : 농협 301-0072-9350-81

◇예 금 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주식회사 고성신문

문의 ☎033-681-1667